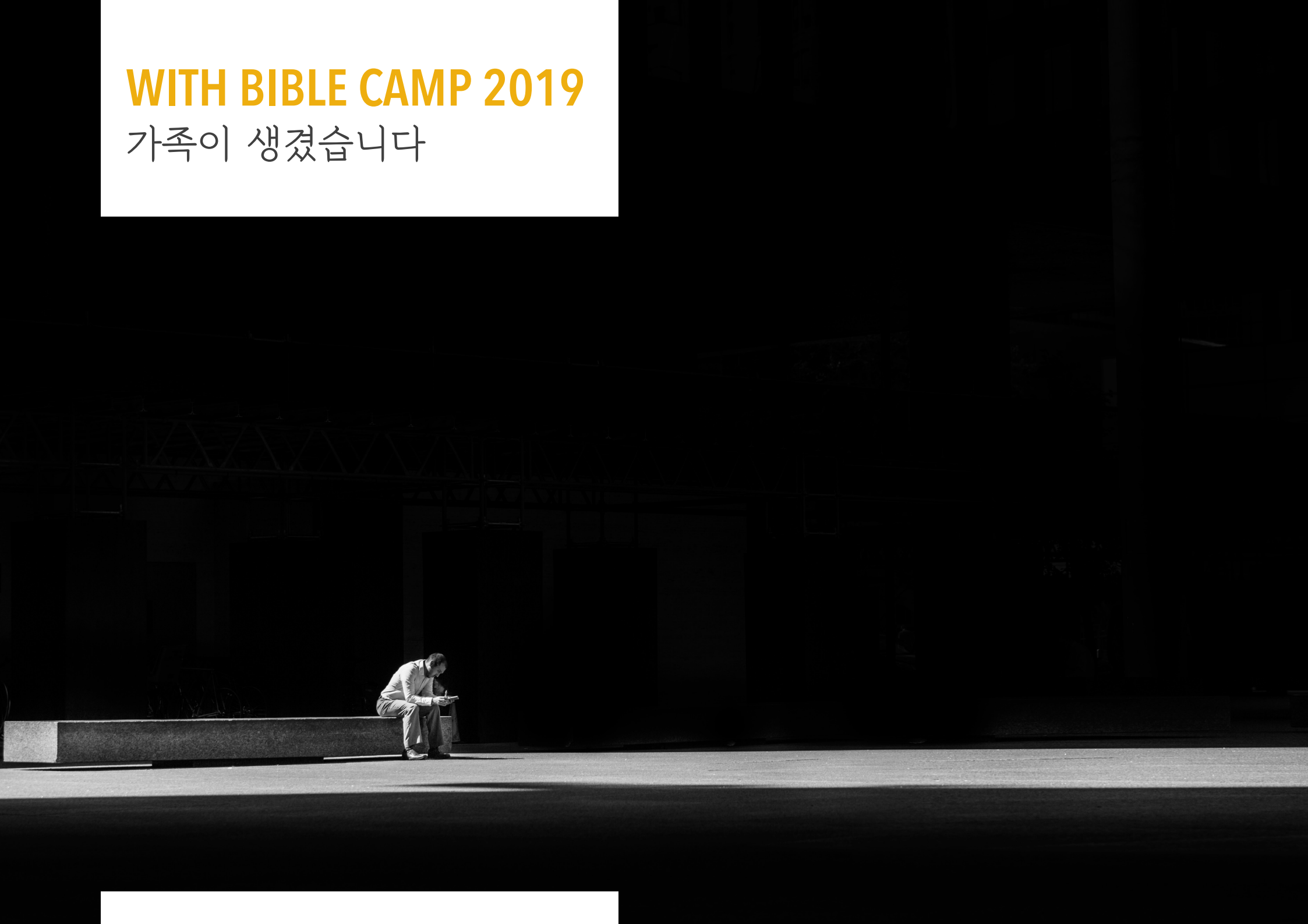


WITH BIBLE CAMP 2019

가족이 생겼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외로운 교회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나?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개인주의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엔 함께 일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기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혼(자)”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혼자 먹고, 혼자 즐기고, 혼자 읽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인터넷이나 SNS처럼 과거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많은 정보와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황량한 바다에 혼자 서핑하듯 군중 속 고독이 더 깊어지는 시대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 교회는 안전할까요?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외로움에 신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어야 교회도 다닐 맛(?)이 난다고 말합니다. 주중엔 연락 한 번 없던 친구(?)를 주일에 만나 친한 척하려 하니 힘이 듭니다. 속에 있는 생각, 겪었던 일을 나누기엔 서로가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하나님께 의당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월요일부터 시작될 진짜 삶(?)을 준비하면 주일은 충분히 잘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리는 연합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 주의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누구도 혼자 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롬 1:6).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엡 4:4).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골 3:15).

2019년 위드바이블 캠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한 몸” 된 사

실을 굳게 선포합니다. 지독한 개인주의와 철저히 싸우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로 다짐합니다(엡 4:3).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한 몸”의 원리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지역교회 형제자매, 우주적인 교회의 형제자매와 어떻게 그 보배로운 연합의 축복을 누릴 것인지 진지한 논의를 하려 합니다.

주 안에 지체된 형제자매님, 당신을 초대합니다.



UNITY#1 우리의 만남&교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 주 안에 한 형제자매로 서로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연합”을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생각을 바른길로 권면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삶에서 쌓아둔 많은 고민과 염려를 주님의 말씀과 주님에 대한 신뢰 위에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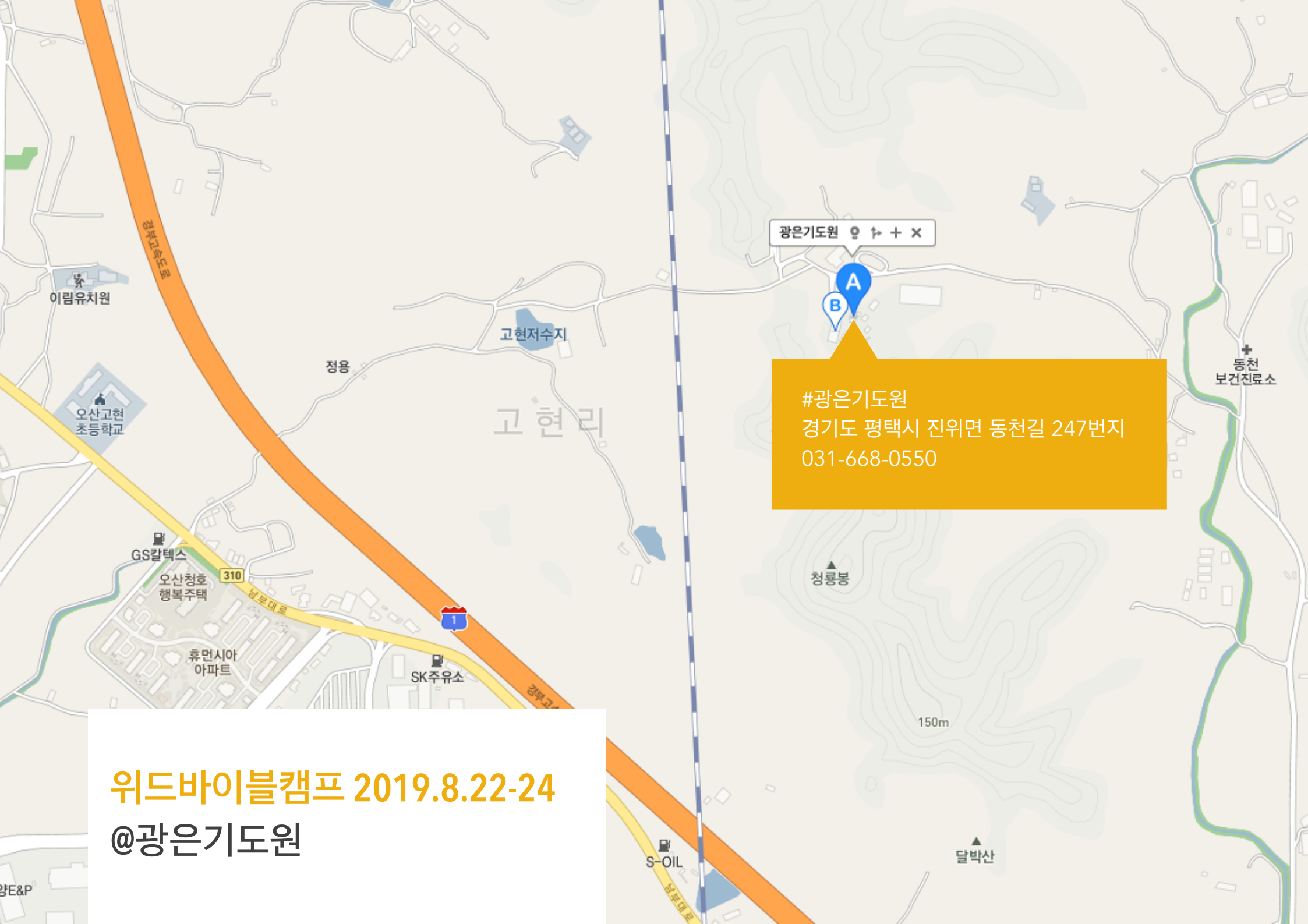
UNITY#2 FEAT. 같이걸어가기(염평안) 우리의 찬양

우리는 함께 한목소리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홀로 골방에서 찬양하는 것과는 또 다른 감동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서로의 귀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들려주며 더 큰 기쁨으로 목소리를 높여 우리 머리 되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UNITY#3 우리의 배움

우리의 연합을 강하게 하는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 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믿어 “하나 됨”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배운 것을 나누며 서로를 세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광은기도원

A
B

#광은기도원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길 247번지
031-668-0550

위드바이블캠프 2019.8.22-24
@광은기도원